



서울시 종로구 종각역 부근에 있는 잉글리쉬 플러스.

맞춤식 영어 교육서로 어린이를 부른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아담한 책의 집

잉글리쉬 플러스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범문사(외서를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1955년 처음 문을 열었던 자리에 있다. 본래 범문사 자리였다가 본사가 신설동으로 이전하면서 1996년 잉글리쉬 플러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상호에서도 느껴지듯이 영어 학습서를 취급하는 이 서점은 성인용, 어린이용 할 것 없이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영어 학습서를 소개한다.

“부모님과 손잡고 가게를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주변에 빌딩이 많아서 그런지 비즈니스 분야의 책을 찾는 직장인들도 많죠.”

종로점의 주석 점장은 약 50평 가량의 넓이지만 서가에 보유하고 있는 책이 3만 권에 이른다며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어린이 고객들이 연령대별로 구입하기 좋은 학습책들을 분류해서 디스플레이하고 있고, 성인들을 위한 토폴, 토익책도 비치되어 있어 온가족이 모두 찾을 수 있다. 서가에는 범문사가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Oxford ELT교재들과 사전, 언어세상에서 수입하는 유아교재 및 사전, Song Book, Video, CD-ROM 등 영어 교

육과 관련된 알짜 상품들이 준비돼 있어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영어 학습서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적격이다. 매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어 자막으로 된 만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학습 테이프를 들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디스플레이된 인형들도 눈에 띈다.

‘영어는 평생학습’이라고, 영어 공부에 맛을 들여 단골 손님이 된 고객들을 위해 회원제도 실시한다. 회원이 되면 책을 구입할 때마다 점수가 누적되고, 계간지 뉴스레터와 학습자료 등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회원들이 좋아하는 생일카드가 배달되기도 하니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고 회원으로 등록해 주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만하다. 현재 잉글리쉬 플러스는 목동, 강남, 부산 등에 지점을 두고 있는데 한 번 회원가입을 하면 이 지점 어느 곳에서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잉글리쉬 플러스의 회원이 된 인원은 약 5,000명. 각 매장에서는 세미나도 열리는데 매월 첫째, 셋째주에 직원들이 직접 나와 도서를 추천하고 추천된 도서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고객과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김앤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책의 집' 처럼 '유브 갓 메일 You've Got Mail'이라는 영화에는 뉴욕의 명소가 된 유서 깊은 어린이 서점이 나온다. 영화를 위해 가상으로 꾸민 공간이지만 여주인공이 운영하는 이 서점은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보물 같은 유산이면서 이 동네 사람들의 어릴적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로 소개된다. 서점 곳곳에서 아이들의 귀여운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아담한 서점,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서점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와 대학로에 있는 영어 학습서점인 김앤존슨과 잉글리쉬 플러스가 그곳이다. 두 서점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영어 공부하러 가던 곳'으로 기억할 만한 공간이기에 어린이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번쯤 구경을 가도 좋을 책의 집이다.

다양한 세미나로 차별화 모색하는 책의 집

대학로에 있는 김앤존슨은 문진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영어 학습서점이다. 고급스러운 갈색 서가에서부터 이국적인 분위기가 묻어나는 곳이다. 김앤존슨 대학로점은 개장한 지 2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단순히 책을 판매하기 위한 이벤트보다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지도하려는 부모와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평생학습 길잡이가 되어준다. 35평의 작은 규모이지만 국내 직수입되는 도서의 7,80퍼센트가 소개된다.

“한 살박이 아이부터 전문 교사까지 모든 고객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혜화점의 채근후 점장은 회화, 독해 관련 책을 찾는 대학생들, 유아들을 데리고 나온 주부들이 주고객층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 매장에는 꼬마들을 위한 다양한 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Board Book, 물에서 갖고 놀 수 있는 Bath Book, 아기들이 입에 넣어도 괜찮은 Cloth Book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Storybook, 그리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카드와 게임보드, 스티커, 포스터 등의 학습 보조

교재들이 풍성하다.

김앤존슨의 특징은 특화된 세미나실을 운영한다는 데 있다. 이 장소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소비자들과 함께 한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세미나실에서는 주부들이 주축이 된 영어동화 세미나가 열린다. 본사에서 주관하는 독서지도사 개념의 영어동화 전문가 과정도 어른들에게 알찬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아이들과 함께 소리내어 읽기, 부모님과 함께 동화 읽기 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면서 책판매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서점이다.

큰 빌딩과 사람 속에 숨어 있지만 보석처럼 값진 지식들을 담고 있는 집. 김앤존슨과 잉글리쉬 플러스는 아이들 스스로 책을 구입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영어공부를 즐겁게 하게 해주는 새로운 책의 장소, 교육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출처**

취재 김청연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